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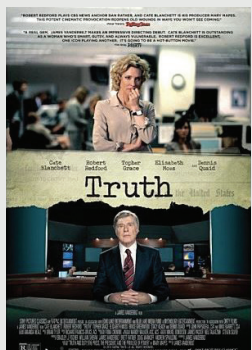
왜 질문을 해야 하는가? - ‘트루스’

합리적 의심에 따른 질문은 언론의 특권이자 의무



이대현 /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영화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다. ‘영화 속의 언론’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다. 그 모습을 통해 ‘언론의 소중한 가치’들을 확인하고, 현실을 돌아보는 영화를 매달 한 편씩 만난다. 아홉 번째 이야기는 제임스 밴더빌트 감독의 ‘트루스’다.



영화 ‘트루스’는?

2004년 CBS 시사고발 프로그램 ‘60분’의 부시 전 미 대통령의 병역비리 보도를 다룬 영화. 베테랑 여성 프로듀서 메리 메이프스가 팀원들과 간판 앵커인 댄 래더와 손잡고 증거 수집과 끈질긴 사실 확인 작업 끝에 부시의 군복무 비리 의혹을 방송한다. 그러나 곧바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증거 조작이란 주장이 나오고, 증언이 뒤집히면서 그들은 ‘오보’의 불명예를 뒤집어쓴 채 방송계를 떠난다. 메리의 회고록 《진실과 의무: 언론, 대통령 그리고 권력의 특권》을 바탕으로 언론과 권력, 여론의 본질과 속성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제임스 밴더빌트(James Vanderbilt) 감독의 2015년 작품. 케이트 블란쳇(Cate Blanchett)이 메리, 로버트 레드포드(Robert Redford)가 댄 래더로 나온다.

“우리가 답을 찾다면, 질문은 뭐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시의 병역비리 관련 문서(메모 사본)를 입수한 CBS 시사고발 프로그램 ‘60분’의 프로듀서인 메리가 이를 방송에 내보내기로 결심하고 팀원들에게 던진 말이다. 메모에는 젊은 시절 부시가 압력을 행사해 주방위군에 입대했고, 근무에 충실하지 않아 근무성적을 평가할 수 없었다고 기록돼 있다.

메리는 만약 질문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질문을 찾았더라도 답을 얻지 못하면 진실 보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질문과 답이야말로 진실에 다가서는 작업의 시작이고 끝이었다. 메리는 세 가지 질문으로 출발했다. ‘부시는 베트남행을 피하려고 주방위군에 갔는가?’, ‘누가 부시를 방위군에 넣어줬는가?’, ‘부시는 왜 신체검사에 불참했는가?’ 메리와 팀원 그리고 그녀의 정신적 아버지이기도 한 간판 앵커 댄은 답을 찾아 나선다. 제보자를 설득하고, 관련자에게 끈질기게 연락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을 TV 카메라 앞에 앉혔다.



메리와 팀원 그리고 그녀의 정신적 아버지이기도 한 간판 앵커 댄은 답을 찾아 나선다. 제보자를 설득하고, 관련자에게 끈질기게 연락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을 TV 카메라 앞에 앉혔다. <출처: 영화 ‘트루스’ 스틸컷>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 같이 확인을 거부했으며, 심지어 부시가 베트남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정반대의 공식 문서까지 들고 나오기도 했다.

그들의 부정과 반대에는 부시를 무조건 지지하는 태도, 자신의 부도덕성을 감추려는 생각, 혹시라도 불이익이나 위험을 당할까 걱정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 처음 메모를 제공한 빌 화이트조차 “상대가 너무 강해”라면서 겁을 먹고 주저했다. 진실을 말하기를 꺼리는 이유에는 시청률과 흥미에만 집착하는 시사고발 프로그램, 나아가 권력에 쉽게 흔들리는 방송에 대한 불신도 자리하고 있었다. 빌과 메리가 만나 나눈 대화다.

“내가 왜 댁들에게 제보해야 하지, 신문도 아니고.”

“아무도 신문은 안 읽으니까요.”

“다른 방송국은?”

“요즘 이런 일을 하려는 사람이 드물어요.”

“상대가 너무 강해” 모두 겁먹고 주저

메리의 말대로 그들은 언론인으로는 드물게 최고 권력자의 비리, 그것도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파헤치려고 덤벼들었다. 위험천만한 모험이었다. 거기에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정치적 배경도, 이해타산도 없었다. 영화 제목처럼 저널리즘의

사명인 ‘진실(트루스)’ 추구만이 있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작은 틈조차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메리와 팀원들, 댄은 주저앉기도 했다. “우리의 역지가 아닐까?” 반문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질문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예상과 달리 답이 나오더라도 그 답이 맞는지 확인했다. 그들에게 질문은 합리적 의심이었다. 합리적 의심에서 나오는 질문이야말로 언론과 언론인의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했다. 댄은 후배 언론인인 마이크에게 이렇게 말한다.

“질문을 한다는 건 중요한 일이야. 어떤 이들은 쓸데없는 일이라 하고, 어떤 쪽에서는 늘 우리더러 편파적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질문을 멈추는 순간 미국인들은 패배하는 것이네.”

그들의 질문에는 용기가 필요했다. 질문을 막으려는 사람들,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질문을 의심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위협과 방해를 뛰어넘어야 했다. 메모 내용을 확인해줄 사람들을 찾아가 설득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입증 자료를 찾기 위해 서류더미에 파묻혔다. 그리고 그들은 질문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것으로 그들이 바라는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 진실을 모두 믿고, 그것을 찾아낸 그들의 용기와 땀이 아름다운 진실의 결과로 빛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들은 오보의 오명만 뒤집어썼다. 합리적 의심과 답이 거짓으로 드러나서가 아니었다. 서체와 어깨글자를 가지고 메모가 가짜라고 하는 주장 때문이었다. 누구보다 처음 ‘60분’의 폭로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다른 방송사들이 고소하다는 듯이 180도 태도를 바꿔 앞다퉈 ‘가짜 다큐 사건’ 취급을 하면서 떠들어댔다. 논점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면서 정작 그 안에 담긴 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관심에서 멀어졌다. 메모가 진짜냐 가짜냐가 보도의 진실보다 더 중요해졌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불과 몇 년 전에도 있었다. 메모를 가짜로 몰고 가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이 메모의 원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객관성과 진실성까지 의심받게 된다는 것을.

성공 아닌 실패의 서사시

방송사 간부까지 겁먹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문서 진위 여부에 매달리자 메리는 소리친다.

“문서는 일부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진실이고, 핵심은 그가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증거를 수집했을 뿐, 문서는 핵심이 아니에요. 의문을 제기했다고 이렇게 무차별 공격을 하다니. 우리에게 이럴 수는 없어요.”

메모를 가짜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다. ‘60분’ 스스로 ‘실수’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래야 모든 의혹도 슬며시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메모에 담긴 것 역시 진실이 아니라고 믿게 될 테니까. 그것을 위해 극단적인 편 가르기와 이념적 재단, 사이버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다. ‘뱀처럼 교활하게 생긴 좌파 녀’, ‘남자가 상대 안 해주는 레즈비언. 누가 몽둥이 다발로 죽도록 후려쳐줬으면.’ 메리의 기사에 붙은 섬뜩한 댓글이 남의 나라, 과거의 모습이 아니다.

영화 ‘트루스’는 성공이 아닌 실패의 이야기다. 언론이 권력에 패배했고, 진실이 가짜에 져고, 방송이 다른 방송들에 패했다. 댄은 사과 방송을 하며 앵커 자리에서 물러났고, 메리와 팀원들도 모두 해고됐다. 부시는 재선에 성공했고, 병역비리 의혹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이처럼 언론 역사에는 진실의 승리보다 패배가 많다. 그러나 댄의 말처럼 언론이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언젠가는 승리한다. 성직자들의



영화 제목처럼 저널리즘의 사명인 ‘진실(트루스)’ 추구만이 있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작은 틈조차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메리와 팀원들, 댄은 주저앉기도 했다. “우리의 역지가 아닐까?” 반문도 했다. <출처-영화 ‘트루스’ 스틸컷>



“
그들의 질문에는 용기가 필요했다.
질문을 막으려는 사람들,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질문을 의심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위협과 방해로 뛰어넘어야 했다.

아동 성추행을 고발한 보스턴글로브의 스포트 라이트팀이나 베트남전의 추악한 정부 기밀문서를 폭로한 워싱턴포스트의 특별취재팀처럼.

기회 때마다 반복되는 말은 ‘질문’

‘트루스’는 실패의 원인을 한 가지로 단정하지 않는다. 진실의 승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준다. 15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도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는 일그러진 모습을 함께 보여주면서. 영화가 메리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했고, 그녀가 직접 각본에도 도움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것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대사가 날카롭고 생생하다. 한번 들어보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하는 말은 ‘질문’이다. 댄도, 메리도, 마이크도. 진실을 찾는 게 언론인의 소명이며, 진실을 추구하고 밝혀내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질문해야 한다고. 영화 마지막 CBS 본사 조사위원회 앞에서 메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부시가 군인의 의무를 다했느냐고 물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들 폰트와 위조 음모 이론만 떠들어댔죠. 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비난하고 정치 성향과 의도, 인성까지 몰고 늘어지면서 진실 따위는 사라져버리길 바라죠. 그리고 모든 게 끝나면 하도 시끄럽게 발을 구르고 고함을 쳐서 뭐가 핵심인지 다 잊어버리고요.”

뉴스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애써 취재하기보다는 다른 방송의 뉴스를 그대로 베껴 내보내기도 한다. 그것에 대한 조롱 섞인 대사도 있다. “뭐 하러 고생스럽게 새로운 사건을 취재해. 다른 사람들이 알아낸 사건에 같이 떠들면 그만이지. 30년 후에 우리가 취재한 누군가에 대해 떠들걸. 그것으로 언론상도 받고”, “대학살 생존자 대신 리얼리티쇼 출연자 인터뷰를 하면 광고료를 더 받지” 등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언론인이란 정치 성향부터 따지려 든 경험이었을 것이다. 지금처럼 정파성과 진영 논리에 빠진 세상에서는 더더욱. 인간은 칼로 두부 베듯 한 가지 색깔, 방향만으로 살지 않는다. 기자도 마찬가지다. “나는 사람에게 꼬리표를 달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복합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메리가 한 말이다.

‘트루스’에서 메리는 정치 성향이 아닌 언론인의 임무인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의 답을 아홉 개나 찾았다. 이렇게 질책할 수도 있다. 진실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나머지 하나의 답, 즉 메모의 원본까지 찾았어야 했다고. 그 하나까지 찾아야만 ‘진실’이 될 수 있었다고. 기자라고 진실을 다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가능하지도 않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용기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뿐이다. 세상 모두가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에 닿기까지 합리적 의심을 갖고 질문을 하면서. 순자(荀子)는 ‘신신신야 의의역신야(信信信也 疑疑亦信也)’라고 했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며, 의심할 만한 것을 의심하는 것 또한 믿음이다. 📌